

LED전광판

기술 가이드

2026-09-30 · (주)연우솔루션 작성 · 사진 10장

회의실 룸사인, 단독형 vs 예약 연동형

오후 2시, 3번 회의실 앞에 두 팀이 서 있다. 한 팀은 앱에 찍힌 예약 내역을 내밀고, 다른 팀은 이미 안에서 노트북을 펴놓았다. 복도 끝 현황 화면에는 3번 방이 여전히 '비어 있음'으로 떠 있다.

회의실 룸사인, 단독형 vs 예약 연동형



회의실 룸사인, 일정이 화면까지 오는 두 가지 길

1	2
단독형 매니저가 CMS에 직접 입력 회의실 3~4개, 전날 확정 예약 위주인 지점	예약 연동형 예약 시스템에서 60초마다 갱신 회의실 6개 이상, 당일 예약 취소가 잦은 지점

원문 수록 이미지 ·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

핵심 정리

- 연동이 되느냐는 화면이 아니라 예약 시스템의 API가 정한다
- 공유기가 재부팅되는 5분, 화면에는 무엇이 떠 있는가
- 하이브리드 회의실은 문 밖과 문 안이 같은 일정을 봐야 한다
- 견적은 화면 대수보다 연동의 깊이에서 갈린다

아침에 매니저가 올려둔 일정표는 그 뒤에 들어온 예약을 알지 못한다.

공유오피스 룸사인을 고를 때 갈리는 지점은 결국 하나다.

화면이 예약 시스템과 이어져 있는가.

예약은 앱에 있는데, 복도 화면은 아침 9시에 멈춰 있다

본문 속 수치

1분

앱에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1분 안에 복도 화면의 칸 색이 바뀐다.

55인치

복도 입구에 55인치 세로형 DID 한 대를 세우고, 1080×1920 화면을 회의실 8칸으로 나누면 한...

3m

3m 떨어진 곳에서도 방 이름, 현재 상태, 다음 예약 시각이 읽히는 크기다.

2~3주

API 문서가 있고 인증 키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개발은 2~3주 안 쪽에서 정리된다.

공유오피스의 회의실 룸사인은 크게 두 갈래다.

단독형은 매니저가 사이니지 CMS에 그날 일정을 직접 입력한다.

아침 9시에 한 번 올려두면, 그 뒤로 들어온 예약은 화면에 뜨지 않는다.

적용 디스플레이

DID·사이니지 모니터 · 키오스크 · 룸사인·현황판

구성 요소

CMS·스케줄 송출 · 원격 관제·제어 · 콘텐츠 제작 · 맞춤 프로그램 개발 · 순번·예약 연동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설치·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
이 가이드로 상담

☎ 010-2700-2648 · ✉ osskoreaing@gmail.com

원문 · 사진 전체: screenmaru.co.kr/blog/224426822113.html



연우솔루션
YEONWOO SOLUTION

기술 가이드 822113